

민주, 손혜원·서영교 의혹 진상 조사

손혜원 목포 투기·서영교 재판 청탁 의혹 부인 지도부 "사건 진위 파악 후 조치" 신중 모드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인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등 돌발악재가 터지면서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두 의원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16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손 의원 투기 의혹=SBS는 지난 1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손 의원의 관계자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목포 근대역 사문화공간의 건물 여러 채를 문화재 지정 전에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방송은 손 의원의 조카와 남편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보좌관의 배우자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안에 있는 적산가옥과 카페 등 모두 9채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단, 이중 1채만 문화재 지정 직후 매입했다고 한다.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뒤 이 건물 가격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14건 연달아 게시하며 투기 목적의 매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 인척이라도 끌어들이 목포 구도심을 살려 보려고 했다"며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나전칠기박물관도 (서울에서) 목포로 옮겨야겠다고 지난해 결심하고 재단에 또 사재를 넣어 목포에 박물관 부지를 샀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 무책임한 얘기를 방송이라고 마구 한다"며 "약간만 올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SBS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 청탁 의혹=검찰이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추가기소하는 상황에서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대거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재판 청탁을 받고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서 의원의 민원을 접수했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 A씨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죄명을 공인음란으로 바꿔주고 형량도 선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임 전 차장은 해당 법원장 등을 통해 A씨 재판에 맡은 재정합의부장에게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죄명

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A씨는 징역형을 피해 벌금 500만원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 의원 측 관계자는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 없다.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서 의원은 사법부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항상 요구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염두한 적 없다.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상조사=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두 의원의 문제에 대해 "사무처의 경위 파악, 그리고 사건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정리된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사무처가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1월 임시국회 열린다

4야 소집요구서 제출 합의... 원내대표 기자회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 1 이상(160명)인 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합의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는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는 '개편휴업'할 수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문을 통해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 4당은 국회 전 상임위에 대한 소집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야 4당이 요구하면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가 소집된다. 다만,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현

안 질의를 하려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각종 국정 현안과 의혹이 켜켜이 쌓여있는 만큼 더이상 민주당은 국회 소집 요구, 상임위 소집 요구를 몽개고 감추려 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는 별도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불법사찰-국고손실 규명 특별법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공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특검 공조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1월 임시국회에서의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당내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합의를 안 했다"고 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김태우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의원 수 확대시 세비 50% 삭감"

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특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3536원에 맞추겠다.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계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1월 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 180석의 개혁 연대를 왜 활용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며 "야 3당이 선거제를 개혁하자는데, 의원 몇석 더 얻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개혁할 수 있겠다"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의 획기적 대안도 필요하다. 2019년을 토지공개념 도입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공시가격 정상화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고, 주거복지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복기왕 정무비서관(오른쪽부터)의 예망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찾은靑 "소통 합시다"

노영민 비서실장·강기정 정무수석 여야 원내대표 예망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취임인사를 하며 소통 강화 의지를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복기왕 정무비서관과 함께 국회를 방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부터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노 실장은 국회에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아서 여야

으로 예정된 여야정협의체를 가능한 한 실현에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정당과의 소통 강화를 늘 강조하고 계신다. 여러 현안에 대해 야당의 주장과 입장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며 "앞으로 많은 분과 긴밀히 소통하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오겠다"고 답했다.

강 수석은 "김 원내대표께서 설 직전에 조속히 여야정협의체를 열자고 한 것을 말씀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속도와 성과가 같이 좀 낼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 "집권 20년도 짧다"

민주 유튜브 채널 '썸' 인터뷰... "정권따라 정책 흔들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자신이 내건 '20년 집권론'과 관련해 "20년도 짧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썸'에 공개된 2차분 인터뷰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했고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이 무너지는 때는 1, 2년밖에 안 걸리더라"며 "20년도 짧다고 본다.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년을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니 연속 집권"이라며 "연속해서 20년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기 대선후보와 관련해선 "나는 그런 감방이 안된다"고 전제한 뒤 "지난

번에 출마했던 분들과 새로 발굴되는 분들, 아직 노출이 안됐지만 성장할 분들이 후보"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노무현대단 이사장이 정계 복귀와 대선 도전 가능성을 일축하는 데 대해선 "인연을 맺은 게 거의 40년이 됐는데, 능치거나 하는 분이 아니다. 솔직한 분"이라며 "아마 지금 말하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대표는 "올해가 분단체에서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해"라며 "제가 보기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전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네이버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NAVER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본 문자는 고가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호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슈빌 점포,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전문 바로알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딩 (주)성원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8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81749802 point
877814000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